活 科 學 硏 究 第16輯 2006.
Journal of Human Ecology
Vol. 16, 2006.

시부모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김 경 신* · 이 정 화 · 김 오 남

전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환경복지학과 교수 ·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전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환경복지학과 전임강사 ·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대불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An Exploratory Study on Development of Family Life Education for Parents-in-law in Marriage Immigrant Families

Kyeong-Shin Kim* · Jeong-Hwa Lee · O-nam Kim

**Dep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College of Human Ecology,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500-757, Korea*

< 차 >

Ⅰ. 서론
Ⅱ. 프로그램 구성의 배경
Ⅲ. 프로그램 구성 방법 및 과정
Ⅳ. 프로그램 기본 구조 및 내용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xplore basic structure and contents for developing a family life education program for parents-in-law in marriage immigrant families.

For this objective, the five-sessional type program for parents-in-law in marriage immigrant families that emphasize comprehension of multi-culture families, communication skills, conflicts solving strategies, and the importance of grandparents role and rearing attitudes was constructed.

The contents, methods, structure must be changed through further verification process and more systematic methods of program development using cooperated counseling system, interaction with self-help groups or other supporting mechanisms are needed to improve family life education for parents-in-law in marriage immigrant families.

Ⅰ. 론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국제결혼의 양적 팽창이 이루어지면서 사회문화적 구조가 크게 변화하게 되었고 본격적인 다문화사회에 접어들게 되었다. 2005년도 외국인과의 혼인은 43,121건에 이르고 있고 이는 전체 결혼 건수의 13.6%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이 건수는 1990년의 4,710건과 비교해볼 때 15년 동안 약 10배 정도 증가한 수치이며 2004년도의 35,447건보다 21.6% 증가한 수치이다(통계청, 2005). 특히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결혼이 급증하여 1990년 619건에서 2005년 31,180건으로 50배 정도 증가하였다. 그 중에서도 2005년도에 결혼한 농촌 총각 중 35.7%가 외국인 신부를 맞이하여, 농촌사회에서의 다문화가정은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이들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은 중국이 64.7%(그 중 47.4%는 중국동포)로서 가장 많고, 다음은 일본(10.6%)·필리핀(8.2%)·베트남(7.0%)·태국(2.0%)·몽골(1.6%)·러시아(1.4%) 등의 순이다(법무부, 2005).

이처럼 한국남성과 이주여성의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한국의 경제상황이 저개발국 이주여성에게 결혼을 결정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며, 여기에 덧붙여 농촌 거주 남성들의 결혼의 어려움, 종교적인 이유,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증가 등도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제결혼의 증가추세가 급속히 진행되다 보니, 미처 이주민에 대한 체계적 지원 정책 등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을 받아들이면서 개인적, 사회적인 혼란과 부적응이 나타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문제는 이들이 개인적인 적응의 과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체계 속에서 기능하게 되므로 가족 전체 나아가 사회가 그 영향권에 있게 됨으로써 다양한 문제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결혼이민자 가족이 안고 있는 가족생활상의 당면 문제를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의사소통과 언어문제를 들 수 있다. 가족간 언어장벽으로 인한 대화 부족은 일상생활상의 상호작용 곤란을 초래하며 이는 곧 구성원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영어 사용이 가능한 필리핀보다는 베트남, 태국 여성들의 의사소통 곤란이 두드러진다(보건복지부, 2005).

이러한 가족관계의 어려움은 부부관계 등 전반적인 가족관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부부관계나 부모자녀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을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반면, 시부모와의 관계에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며 연령 혹은 세대간 격차에 의해 가치관이나 생활습관의 차이가 더욱 커서 그 적응의 어려움이 더 심각한 형편이다(홍기혜, 2000).

앞으로 결혼이민자가족의 양적 증가가 지속되리라 본다면 이러한 결혼이민자가족의 적응을 도와줄 수 있는 체계적 대책과 사회적 서비스가 보다 빨리 확충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이주여성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로는 크게 상담서비스, 교육프로그램, 쉼터 등이 있으나 산발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어 국가 정책 차원의 포괄적 대응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최근에야 전국 규모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05)와 국제결혼 부부를 위한 교육, 상담 및 가사도우미 파송을 통한 결혼안정화, 가족교육시범 운영기관 위탁 등 가족지원과 부부관계에 초점을 두는 움직임(여성가족부, 2005)이 시작되었고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지원 방안이 발표되었다(차별시정위원회, 2006).

결혼이민여성은 단순한 개인 거주자로서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정주민으로서, 자녀를 통해 향후 지역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 사회의 주요 인적자원으로서 기능하여야 하므로, 개인뿐만 아니라 이들 가족 전체가 받는 영향을 중시하고 이들 모두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도움이 이루어져야 하며, 경제적·물질적 지원 이외에 가족 스스로의 적응과 발달이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특히 이주여성을 비롯한 가족원 모두가 적응의 필요성이 크고, 스스로가 인식의 전환을 통해 인적, 물적 자원을 재창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가정의 제 문제를 해결하고 현명히 대처하며 예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재사회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들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정서적, 사회적응적 능력과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하겠고, 이에 앞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정착화를 돕고 이들 가족 전체의 기능 강화와 활성화 노력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교육과 상담이 구조화된 양식으로 수렴된 적응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현재까지의 결혼이민자 프로그램은 주로 결혼이민자 당사자에게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실시된 경우가 많고, 다음으로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일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있으나, 시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전무한 형편이라 이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하되, 우선적으로 관련문헌과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인터뷰결과를 토대로 기초적이고 탐색적인 수준으로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차후에 교육의 효과성 검증을 통한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리라 본다.

Ⅱ. 연구의 배경

1. 지원서비스 및 프로그램 실태

현재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이 다양한 결혼이민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별로도 다수의 프로그램들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부처나 지자체의 사업은 법률 등 기초 인프라 확보, 사회복지 지원, 이주여성 개인을 위한 언어교육이나 문화교육이 주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찾아가는 서비스, 코시안교육 등이 행해지고 있다. 이주여성인권센터, 외국인노동자센터 등 유관기관에서도 외국인여성을 위한 언어교육, 상담, 문화체험 등이 주를 이루고 있고 가족캠프 등이 가족지원사업으로 소수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2006년도에 전국 51개소를 지정, 운영하고자 하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주요 프로그램은 가족지원을 초점으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가족지원 사업도 아직은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이 체계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참고로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현황은 〈표 1〉과 같다.

이러한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 이용실태를 보면 한국어 및 문화적응교육이 22.4%로 가장 높게

< 1> 2006년도 지자체 지원 결혼이민자 및 가족 대상 교육 및 상담 사업

	교육				상담			
	언어	문화	가족	취업 등	가족	법률	취업	기타
서울	○	○			○	○		
부산	○	○	○(부부,자녀)	○		○		
대구	○	○		○	○	○		
인천	○	○	○(자녀)					
대전	○	○						
경기	○	○	○(부부)					○
강원	○	○	○(부부)	○				
충북	○	○	○(부부)			○		
충남		○	○(자녀)					
전북			○	○	○			
전남	○	○	○(부부)	○	○			
경북	○	○	○(자녀)	○	○(가폭)			
경남	○	○	○(부부)	○	○			
제주	○	○	○					

* 여성가족부(2006) 자료 기준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식사(반찬)배달서비스(16.3%),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서비스(12.9%), 집수리, 도배 등 주택관련서비스(12.0%), 의료비지원서비스(11.6%), 생계비지원서비스(10.2%)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부부 및 가족관계교육은 8.6%에 그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5).

이처럼 아직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효율적 지원책이 미비한 가운데 특히 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한 지원서비스는 일천한 형편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복지지원서비스 강화 이외에 특히 가족 지원 분야에서는 언어소통이 가능한 교육과 상담의 활성화를 비롯하여 결혼이민여성의 출신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프로그램 등이 적극 시행되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5). 특히 부부관계 강화프로그램이나 부모자녀관계 강화 프로그램 이외에도 시부모를 비롯한 국제결혼가족 모두가 이주여성의 문화나 관습에 대해 문화적 상대주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한다(전라남도, 2006).

교육인적자원부 외(2006) 관련부처 합동으로 설계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에서도 기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이외에 가족내 상호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를 강조하고 있으며 언어 및 문화적응 교육 프로그램, 자녀 지도 및 문화체험 교육 및 상담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은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여성가족부(2005)의 국제결혼 부부교육 프로그램에서 결혼이민가족을 3년 이상과 미만으로 나누고 다시 농촌과 도시로 나누어 의사소통, 문화적응, 갈등해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부부프로그램을 개발한 바 있다.

2. 특성과 시부모와의 적응 문제

결혼이주여성이 확대가족 형태로 시집식구와 같이 사는 비율은 21.7%, 특히 농촌의 경우 44.7%에 이르고 있어 일반적인 한국가족형태(2000년 기준 핵가족 7.9%)와 비교할 때 시부모와의 동거에 따른 갈등 비율이 더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이주여성 다수가 유교적이고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관념이 뿌리깊게 남아있는 시댁의 시부모와 동거하면서 며느리로서의 전통적 의무를 강요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김오남, 2006). 다수의 선행연구들(성지혜, 1996; 윤형숙, 2004b; 전만길, 2005; 한건수, 2006; 홍기혜, 2000)에서도 이주여성이 힘들어 하는 핵심적 내용으로 시부모와의 갈등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가족의 교육 및 상담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서는 이들 가족의 특성과 적응의 어려움들을 점검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본다. 즉 이러한 적응 문제들이 발생되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 치료할 수 있는 자원을 파악하는 등 효율적인 접근 방식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가족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특성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교육 및 상담의 체제와 내용을 구성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결혼이주여성의 시부모와의 갈등은 기본적인 세대차이, 생활환경 차이에 덧붙여 문화적 격차가 가중되면서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성지혜, 1996; 홍기혜, 2000). 배우자와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우선적으로 언어소통의 어려움이 지적되고 있으며,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차이, 생활방식의 차이가 대표적인 요인이다(보건복지부,2005; 전라남도, 2006). 윤형숙(2004a)은 고부간의 갈등과 시어머니의 학대양상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며느리를 구박하고 아들에게 며느리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 아들의 마음을 붙들어 매어 두려고 하며, 시부모가 가정경제권을 장악하고 아들과 며느리 모두 시키는 대로 하게 하는 것, 남존여비적인 태도를 갖고 남성은 하늘, 여성은 땅, 무조건적인 아들에 대한 순종과 복종을 강요하는 것,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시부모를 모셔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주입시키며, 시집식구가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은 경우 욕을 하거나 심하게는 폭력을 행사한다. 또한 같은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못 어울리게 하거나 지역사회사람과 관계를 갖지 못하게 집 밖 출입을 통제하며 사랑, 이해, 순종, 칭찬 등 가부장적 기대에 부응하여 살기를 강요하고 기대에 어긋날 때 통제의 언어와 행동이 나온다.

시부모들은 며느리들의 출신국가에 대한 편견이 많으며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로 여성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보건복지부, 2005). 또한 경제적인 문제, 손자녀양육태도 등에 있어서 며느리를 믿지 못하고 경계하기도 하며, 오랫동안 결혼하지 못하고 자신의 보호 아래 있었

< 2> 결혼이주여성과 시부모의 주요 갈등 문제 및 내용

주요 갈등 문제	갈등 내용
의사소통 곤란	- 며느리의 언어습득 속도에 대한 시어머니의 이해부족 - 시부모의 방언 사용 등으로 표준 언어교육과의 상이성 - 존칭이나 의례적 언어사용 미숙으로 인한 오해 - 말할 때와 말하지 않아야 할 때 등 언어문화 차이
문화적 갈등	- 친밀하고 사적 경계가 모호한 한국의 친척관계, 이웃관계로 인한 갈등 - 시부모에 대한 예의(면전에서 부부애정표현 삼가 등) 이해 부족 - 의생화 문화 차이(더운 나라 출신 며느리의 화려한 의상 등) - 식생활 문화 차이(생소한 음식 조리를 꺼려하는 등)
가족 권력 갈등	- 시어머니의 며느리 나라 무시 - 며느리에 대한 불신으로 경제권 이양 꺼림 - 지나친 자녀 양육 간섭 - 아들 조정을 통한 부부관계 간섭
경제적 문제 등	- 빈곤에 대한 적응 차이(며느리기대, 사전 정보 차이) - 거래혼적 의식으로 며느리 출입 및 행동 통제 - 친정 송금 및 통화비용 등에 대한 간섭, 불만

던 아들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으로 며느리와의 갈등을 빚기도 한다. 앞서 제시한 관련문헌을 토대로 결혼이민자가족의 보편적인 고부간의 갈등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따라서 교육과 상담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시부모에 대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적극적으로 이들이 이성적인 가족의 리더로서 기능하고 가족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어야 한다.

3. 위한 프로그램

직접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이외에, 가족관계의 향상을 도와주기 위한 프로그램 중에서 시부모관계를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성인부모자녀관계 관련 프로그램은 주로 노인교육이나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형편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족생활에 관련된 교육의 개념은 사회교육법 제2조에서 사회교육 및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고 이어서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11230호, 1983. 9.10 공포)에서 가족생활교육 영역이 사회교육의 영역 10개 중 4번째로 명시되면서 제도적으로 국가적인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사회교육 10개 영역은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과 교양교육, 직업기술 및 전문교육, 건강 및 보건교육, 가족생활교육, 지역사회교육 및 새마을 교육, 여가교육, 국제이해교육, 국민독서교육, 전통문화이해교육, 기타 학교교육 등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가족생활에 관련된 교육 내용은 가족생활교육에만 한정되지 않고 여타의 교육 분야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중시될 수 있다.

가족생활교육이란 가족생활의 질적 극대화를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가족원에게 필요한 자원, 정보, 기술 등을 제공하고 지도하는 과정을 말하며, 가족생활에 관련된 개념이나 원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개인적인 태도나 가치를 개발하며 타인의 가치와 태도를 이해 수용하면서 가족복지에 기여하도록 하는 대인기술을 학습하는 과정을 말한다(Arcus,1987). 이러한 가족생활교육의 목적은 개인과 가족으로 하여금 현재와 미래의 가족원으로서의 능력을 개발케 하여 가족생활에 대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도와주는 것이다(Arcus, 1990). 따라서 결혼이민자가족의 적응을 위해 가족생활교육은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결혼이민자가족의 시부모를 노인이라는 연령집단으로 간주하여 본다면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가족생

활교육은 전반적인 노인사회교육 안에 포함되어 실시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노화의 특성, 성인부모자녀관계, 조부모손자녀관계, 노인부양, 노인복지, 노인건강, 세대전달 등이다(오윤자, 1992; 유영주, 1991). 서병숙(1991)은 특히 노인의 가족관계를 중시하여 자녀세대와의 동거문제, 조부모손자녀관계, 노인의 역할, 가정교육 등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성인부모자녀관계나 고부갈등을 다룬 프로그램들이 소수 개발되어 운용되어 오고 있는데, 결혼이민자가족의 시부모 프로그램 구상에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정연 등(1996), 홍숙자 등(1996)은 며느리 대상의 고부관계 향상 프로그램으로 가족스트레스와 적응 이론을 적용하여 시부모세대의 이해, 가족문화와 가족관계에 대한 이해, 자기통제와 사회적지지, 효율적 의사소통방법 및 갈등해결방법의 내용으로 구성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바 있다. 성인부모자녀간에는 가치관과 삶의 방식의 차이, 역할기대의 차이, 의사소통방식의 차이 이외에 가족내 권력을 둘러싼 갈등, 상호간의 프라이버시 존중의 문제, 손자녀 양육관 차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고정자, 1989; 송현애, 1993; 이기숙, 1985) 일차적으로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인부모자녀관계의 일반적인 갈등 요소 이외에 결혼이민자가족이 겪는 특성적 문제에 기준하여 시부모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한다. 다만 시부모 연령층의 학습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 집단상담을 병행하는 복합 프로그램을 구상하고자 한다.

Ⅲ. 구성 방법 및 과정

프로그램은 협의로 해석할 때 특정 교과과정이나 특별한 주제에 관련된 학습과정성교육 과정, 부부대화 프로그램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좀더 광의의 개념으로 볼 때는 특정한 시설이나 기관의 후원으로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 즉 지역사회의 기관이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코스 또는 교과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Thomas 등, 1993). 결국 복지서비스의 관점에서 볼 때 사업 프로그램은 교육이라는 한정된 개념보다는 상담, 문화, 집단활동 등의 과정을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다양한 활동을 모두 포괄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세부적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종류의 포괄적인 지원서비스 혹은 지원사업의 제시 보다는, 구조화된 양식으로 소규모의 단위 사업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하므로 특히 세부 내용 구성과 검증이 보다 치밀하게 요구되는 교육 및 상담 복합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를 구성하였다. 그 탐색과정은 다음과 같다.

○ 관련 문헌연구를 통하여 결혼이민자가족의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
○ 결혼이민자가족 대상 사업 및 관련 프로그램 분석
  - 기존의 결혼이민자 관련 사업의 진행 내용 및 특성을 분석하고 이의 문제점을 도출
  - 특히 결혼이민자가족 대상 프로그램의 시행 실태 및 현황을 조사 분석
○ 결혼이민자가족 사업실시기관 종사자 요구도 분석
  - 결혼이민자가족 대상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관련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기존사업의 특성, 문제점, 이들 가족에 대한 지원 방법 및 내용 등 요구도 조사 분석

관련 유관기관 종사자들(관련 실무자 21명 심층 인터뷰 및 별도 3개 관련기관 방문)로 부터 전반적인 결혼이민자 관련사업에 대한 평가와 교육 요구도를 수렴한 결과, 시부모적응 문제 및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주요 사항을 정리한 내용은 〈표 4〉와 같다.

Ⅳ. 프로그램 기본 구조 및 내용

관련 유관기관 종사자들이 지적한 전반적인 결혼이민자 관련사업에 대한 평가와 교육 요구도를 보면, 먼저 형식에 있어서는 가족원 교육의 필요성, 통합적 프로그램의 개발 실시에 대한 요구가 공통적이며, 내용에서는 상호적인 문화교류교육, 가족원의 자긍심 고취,

< 4> 결혼이민자 관련사업 실시 기관 종사자 인터뷰 결과

N시 외국인 쉼터 종사자	- 시부모는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 종교를 강요하는 시부모가 가끔 있고, 공통적인 것은 시어머니가 '잔소리', '지나친 간섭'을 많이 한다고들 한다. 또 아이를 낳아야만 며느리 대접을 하는 부분도 있다. 그 전에는 도망을 갈까봐 집밖에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기도 한다. 어떤 며느리는 임신 중에도 밖을 다니지 못하다가 아이 낳고 나서야 나올 수 있었다.
G시 결혼이민가족지원센터 종사자	- 우리는 한국어 교육과 한식조리를 교육한다. 이들 가족 중 남편들이 '어머니와의 갈등'을 자주 호소한다. 그래서 〈이주여성과 시어머니만의 여행〉을 기획한 경우가 있었는데 좋은 경험이었다. 또 가족캠프를 기획하고 있다. 1박2일 정도로 한식조리 뿐 아니라 외국음식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자녀교육을 위해 방문학습지 교사를 이용하는 방법을 구상중이다.
S시 이주여성 인권센터 실무자	- 시모나 남편이 이주여성의 나라와 문화를 무시하므로 아기와 이야기 하는 것을 금하는 등의 횡포를 부리고 있으므로 이들 가족을 위해 다중국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 할 필요가 있다. - 자녀들의 학습이 부진한 것은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에서 관찰되는 양상과 비슷하나, 문제는 학습부진이 아닌 모자녀간의 관계로 자녀가 어머니의 나라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없고, 열등감을 갖게 됨으로써 엄마를 무시하거나 자신의 가족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므로 이에 대해 자녀, 남편, 시모가 '당당함'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Y시 지자체 실무자	- 단위 프로그램 운영보다 모든 프로그램을 연계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면 한다.
Y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실무자	- 결혼이민자가족을 단순히 요보호가족으로 보는 시각이 교정되어야 하고 이들 가족이 자발적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통합적 가족생활교육이 필요하다. - 교육대상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하며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G시 지자체 실무자	- 단발성 혹은 선심성 지원사업은 지양하고 자발적인 행동의 동기 부여가 가능한 사업을 실시함이 필요하다. 차별에 대한 옹호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자립성보다는 의존적 사회구성원을 늘리는 결과도 우려해야 한다.
K군 결혼이민가족연대 실무자	- 집단상담 형태를 통하여 쌓인 감정들을 드러내게 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종합된 프로그램 즉 한글과 문화적응, 취업, 보육시설 등이 어우러진 형태가 좋겠다.

자발적 기능 유도 등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초 자료를 토대로 탐색적으로 결혼이민자가족의 시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의 기본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 프로그램명 : 결혼이민자가족의 시부모 프로그램
○ 목적 : 가장 밀접한 사회적 지원 자원으로서의 시부모가 이들 가족에 대해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지원하게 함으로써 결혼이민자 가족의 건강성 강화
○ 대상 및 인원 : 결혼이민자 가족의 시부모 20~30명 (며느리 국가별로 조별토의)
○ 기간 : 주 1회(80분), 총 5회
○ 개발 자료 : 매뉴얼, 워크북, 강의용 영상 자료 및 ppt 자료
○ 회기별 내용

1 : 우리 가족의 의미 이해				
표		1. 다문화 가족과 다른 가족들과의 '차이'는 인정하되 부끄러울 것은 없음을 인식한다. 2. 며느리를 포함한 전반적인 가족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한다.		
단 계		내 용	방법	시간
내용	도입	1.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소개) 2. 1회기 교육 내용 소개		5분 5분
	전개	1. 친밀감 형성하기 ▶ 자기소개 및 자기 가족소개 ▶ 며느리를 맞게 된 과정과 그간의 사연 나누기 2. 가족 관계의 중요성 ☞ 비디오 시청 〈사랑해요 아시아, 사랑해요 한국〉 ▶ 내가 사랑하는 사람 : -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기록하게 함 - 〈사랑하는 사람 표〉를 이용,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나 주변 다 포함한 사람들 중 순위를 매겨보라고 설명 ▶ 사회적 지지망 중 가족의 중요성 강조 ▶ 우리 가족에 대해 당당하자 : - 조별로 경험 나누기 : 어떨 때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가?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았을까? - 정리해서 발표하기 : 가장 좋은 대안을 발표한 조에게 박수, 격려하기 ▶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 중 하나인 결혼 이민자 가족 : 결혼이민자가족을 가족을 다른 가족들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고, 며느리에 대해서는 더 아껴주고, 고마워하고, 다른 이웃들에게 자랑스럽게 내보이게 될 때 내 아들, 며느리, 손자녀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지는데 도움이 됨을 강조	 활동 1 활동 2 집단상담 1 강의1 집단상담 2 강의2	 10분 15분 15분 5분 10분 5분 5분
	종결	1. 화목한 우리 가족을 이루는 것의 중요성 2. 2회 일정 및 내용 알리기 3. 과제 제시		5분
준비물 : 강의 지침서, 워크북, 교육일정표, 명찰, 영상물, ppt 1-1 ~ 1-4				

2 : 우리 며느리 나라 문화알기				
표		1. 며느리 나라에 대해 이해한다. 2. 며느리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 문화를 배움으로써 며느리의 행동과 생각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단 계		내 용	방법	시간
내용	도입	1. 지난 주 강의 및 활동 내용을 점검 2. 이번 시간의 내용과 활동 소개		10분
	전개	1. 며느리 나라 탐구 ▶ '우리 며느리 나라는 ~한다 하더라' 나누기 : - 조별로 나누어 각자가 알고 있는 며느리 나라에 대한 지식을 나눈다. 같은 나라인데 서로 알고 있는 것이 다를 경우에는 진행자(보조진행자)가 중재해 준다. - 종합된 내용을 조별로 발표하게 해 경험을 공유할 시간을 갖는다. ▶ 국가별 특징 및 문화관련 가족갈등 사례 제시 : - 〈국가별 특징 표〉를 통해 나라별 차이를 설명한다. 사례 1~2. 문화 차이와 관련한 가족갈등 연구사례 사례 3. 음식문화 관련 이민자 며느리들의 어려움 사례 사례 4. 주생활과 관련 이민자 며느리들의 어려움 사례 2. 며느리 나라 문화 알기 - 새롭게 알게 된 사실 나누기 : 며느리 나라의 결혼과 가족 및 여성의 지위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아본다. - 간단한 말 배우기 - 며느리 고향 찾아보기 게임 : 며느리 나라 지도에서 며느리의 고향을 찾은 사람을 격려해주고, 우리가 우리나라 풍습을 가르치려 했던 데 비해, 그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가를 상기시켜 줌으로써 며느리에 대해 더 배려하고 관심을 가질 것에 대해 동기를 부여한다.	활동 1 강의1 활동 2	20분 20분 20분
	종결	1. 오늘 배운 내용 정리 및 요약 2. 2회 정리 및 3회 일정 알리기		10분
준비물 : 강의 지침서, 워크북, 명찰, ppt 2-1 ~ 2-15				

3 : 열린 마음으로 생각 바꿔보기				
표		1. 긍정적인 시부모-며느리(고부) 관계를 이루기 위해 열린 마음을 갖는다. 2. 바람직한 며느리와 시어머니 역할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이를 실천한다.		
단 계		내 용	방법	시간
내용	도입	1. 2회기 내용 상기, 과제 확인 2. 3회기 교육 내용 소개		5분
	전개	☞ 비디오시청 〈케오메리의 행복을 빚는 가족〉 1. 노부모-성인자녀관계 ▶ 고부갈등 : 1) 결혼이민자 가족의 고부갈등 유형 - 같은 상황이라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해석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 나의 행동이 (비록 잘 되라고, 잘 살라는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2) 일반적인 고부갈등 유형 설명 ▶ 며느리의 긍정적 특성 찾기 - 우리며느리의 장점은 많이, 단점은 조금 찾기 - 우리 며느리 자랑하기 2. 고부관계의 변화 ▶ '내가 한 시집살이'와 '요즘 며느리들….' : - 현재 자녀들에게 어떤 세대 차이를 느끼는지 이야기 해 봅시다. 또, 세대 차이를 느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발표해 봅시다. ▶ 바람직한 시어머니 역할과 세대 간 호혜성 : - 고부간의 원만한 관계를 위하여 생각해야 하는 것들 설명 ▶ 자녀와의 호혜성 점검 : - 참가자들 스스로 점검표를 작성해보게 하고(혹은 말하게 하고) 누가 더 베풀고 있는지, 누가 주로 받는 쪽인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한다.	강의1 활동 1 활동 2 강의2 집단상담 1	15분 15분 10분 15분 5분 5분
	종결	1. 오늘 배운 내용 정리 및 요약 2. 3회 정리 및 4회 일정 알리기 - 과제 '우리가족에게 가장 자주 일어나는 문제'		10분
준비물 : 강의 지침서, 워크북, 명찰, 영상물, ppt 3-1 ~ 3-10				

4 : 마음으로 통하는 우리				
표		1. 좋은 가족관계를 갖기 위해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2.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을 안다.		
단 계		내 용	방법	시간
내용	도입	1. 지난 주 강의 및 활동 내용 점검 2. 이번 시간의 내용과 활동 소개		5분 5분
	전개	1. 효과적인 대화 ▶ 배려하는 마음가짐과 비언어적 의사소통 ▶ 사랑의 언어 : - 사랑의 언어가 될 것들을 제시해주고, 난 어떤 행동을,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서로 이야기하게 한다. - 서로 효과적이었던 것에 대해,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 내가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해주고 싶은 것, 아들이나 며느리가 내게 해주었으면 좋을 것 같은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2. 효과적인 말하기 듣기 ▶ '잘~말하기'와 '잘~듣기' : 잘 말하기 1: 이중메시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잘 말하기 2: 상대방의 요청을 거부할 때는 부드럽게, 요구할 때는 긍정적으로 표현한다. 잘 말하기 3: '나' 전달법을 사용한다. 잘 듣기 1 : 같은 편이 되어주자!, 동의하기 ▶ '말하기' '듣기' 연습 : - 연습문제를 사용하여 좋은 표현 실습 지도	강의1 집단상담 1 강의2 활동 1	15분 10분 10분 20분
	종결	1. 오늘 배운 내용 정리 요약 2. 4회 일정 정리 및 5회 일정 알리기 - 과제 제시		5분 10분
준비물 : 강의 지침서, 워크북, 명찰, 강화물, ppt 4-1 ~ 4-6				

<table>
<tr><th colspan="5">5　　: 손자녀의 양육자로서 조부모 역할</th></tr>
<tr><td colspan="2">표</td><td colspan="3">1. 결혼 이민자 가족에서 손자녀의 어려움을 이해한다.
2. 손자녀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가족관계를 이루기 위한 조부모의 역할을 안다.</td></tr>
<tr><td colspan="2">단 계</td><td>내　　용</td><td>방법</td><td>시간</td></tr>
<tr><td rowspan="3">내용</td><td>도입</td><td>1. 지난 주 강의 및 활동 내용을 점검한다.
2. 이번 시간의 내용과 활동을 소개한다.</td><td></td><td>10분
5분</td></tr>
<tr><td>전개</td><td>1.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
▶ 우리 손자녀가 겪는 어려움은 무엇일까? :
- 각 조별로 우리 손자녀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혹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가에 대해 이야기 한다.
▶ 결혼이민자 자녀들의 어려움과 조부모의 역할 :
-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 자녀들의 어려움은 언어 문제, 위축감이나 자신감 결여, 친구들의 따돌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혹은 겪게 될지도 모를 우리의 손자녀를 위해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2. 손자녀의 자존감 향상을 위하여
▶ 손자녀 기 살리기 :
- 기를 살리는 방법과 기를 꺾는 방법
<table><tr><th>기를 꺾기</th><th>기를 살리기</th></tr><tr><td>부정적인 기대를 갖기</td><td>자신감 보여주기</td></tr><tr><td>실수에 초점 맞추기</td><td>가치를 인정하기</td></tr><tr><td>과잉기대,
과소기대(과잉보호)</td><td>독립성 자극하기
(스스로 할 수 있어!)</td></tr></table>- 자신감을 보여주는 방법
▶ 손자녀 칭찬거리 찾기 :
- 우리 손자(손녀)가 잘하는 것 자랑하기
- 어떻게 칭찬해줄까 이야기하기
- 조별로 '손자녀 칭찬거리'가 어떻게 이야기 되었는지 들어보고, 손자녀의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칭찬을 잘 한 조(사람)를 격려한다.</td><td>활동1

강의1

강의2

활동2</td><td>5분

15분

10분

10분</td></tr>
<tr><td>종결</td><td>1. 오늘 배운 내용 정리 및 요약
2. 그동안의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 나누기</td><td></td><td>5분
20분</td></tr>
<tr><td colspan="5">준비물 : 강의 지침서, 워크북, 명찰, 수료증, 카메라, 평가지, ppt 5-1 ~ 5-2</td></tr>
</table>

○ 시부모용 프로그램의 진행 지침

- 이 프로그램은 각 회기의 시간을 1시간 20분으로 구성하였다. 장시간 진행하는 경우 시부모가 피로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시간이 소요되도록 작성하였으나 진행자가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시간을 조절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각 회기마다 조별활동시간이 많이 주어지는데 조별활동은 집단상담의 구조적 형식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며, 팀원들 간 상호 나눌 것이 많은 경우 시간을 더 줌으로써 결혼이민자 가족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더 많은 정보를 나눌 시간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 각 회기에 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 하나의 회기를 두 회기로 늘릴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결혼이민자 가족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습득하고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니 만큼 시간 내에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다.
- 참가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이민자 가정 안에서 며느리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시어머니로서, 시아버지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역할을 해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내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 진행자는 이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실제 결혼이민자 가족에서의 갈등 사례나 긍정적인 역할 모델을 잘 전달해서 결혼이민자 가족의 시부모가 결혼이민자 부부나 자녀에게 보다 긍정적인 지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이 프로그램의 효과는 5회기가 끝난 후 실시하는 사후평가를 통해서 측정될 수 있다.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실천가능성에 대한 평가 총 10항목,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Ⅴ. 결 론

결혼이민자가족들은 보이지 않은 문화적 차별과 왜곡된 고정관념으로 인해 지역사회내의 문화적 적응과정에서 여러 가지 단절의 벽에 의해 고립되기 쉬우며, 이는 이민자의 심리적 위축도 물론이지만 가족 전체의 부적응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주여성이 주체적 행위자가 될 수 있고 동시에 결혼이민자가족이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적응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리라 보며, 이들 가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의 적극적 실시가 결혼이민자가족의 문화적 주변화를 막는 실천적인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문화적, 심리적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자조조직의 형성이나 상담서비스 그리고 이들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기 위한 문화 혹은 홍보 프로그램 등은 매우 절실하게 요구되는 부분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 내에서의 적응을 위한 외국인지원은 주로 종교단체와 민간단체에서 도맡아 하여 왔는데 이는 재정적 어려움과 미흡한 서비스 구조로 인해 결혼이민자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크게 되지는 못하여 왔다. 그러므로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 지역사회 내 전문서비스기관이나 민간단체들이 연계하여 차별화되고 구체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 적응을 돕고 이들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나름대로의 창조적인 문화혼성성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결혼이민자가족의 시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보았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비록 교육과 집단 상담을 위주로 편향된 범위의 내용을 구상한 것이지만 이러한 보다 구조화된 양식의 적응 프로그램을 통하여 결혼이민자가족의 기능 강화와 활성화 노력에 대한 기여가 가능하리라 본다. 다만 본 연구는 그 탐색과정의 기초만을 제공한 것으로 차후 세부 내용의 보완과 검증을 통하여 개발 과정이 완성될 수 있으리라 본다. 현재까지의 빈약한 결혼이민자 프로그램이 주로 결혼이민자 당사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새로운 계기를 형성하였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결혼이민자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은 앞서 제시한대로 주로 교육과 집단상담 활동을 염두에 두고 구성되었다. 교육 대상에 따라 강의식 과정, 발표 및 토의활동, 상담

활동의 정도를 조정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의 비율은 실제로 현장에서 진행자나 상황에 따라 그 소요시간이나 내용의 조정이 더욱 가능하리라 본다. 시부모의 경우에는 장시간의 강의를 수용하기 어려워 집단상담 유형의 다양한 활동이 더 효과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집단상담의 전통적 형식을 고수하기는 어려우리라 보므로 자유활동과의 균형을 맞추어나갈 필요가 있다. 집단상담의 경우 그 내용이나 시간을 참여자의 형태, 크기, 특성에 맞추어 조정, 설정하여 적합한 지도자의 참여 아래 진행한다면 개인상담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본다. 특히 시부모의 경우 별도로 상담의 기회를 갖기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러한 시도를 통하여 가족갈등의 해결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함이 필요하겠다.

추후에 이들의 문화적, 심리적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더욱 개발되고, 자조조직의 형성이나 상담서비스가 보편화되는 등 이들 가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어 결혼이민자가족의 문화적 주변화를 막는 실천적인 방법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고 문 헌

강유진(1999).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61~80.

광주여성발전센터(2002). 보도자료: 광주 전남 외국인여성 실태조사.

광주여성의 전화(2004). 광주·전남지역 결혼한 이주여성 실태보고 및 토론회. (사)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광주가정폭력상담소.

고정자(1989). 한국 도시주분의 고부갈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공미혜·안현주(2006). 농촌지역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경험. '농촌사회의 변화와 다양한 가족'. 한국가족관계학회·한국농촌사회학회 공동세미나.

교육인적자원부(2006).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대책(회의자료)

교육인적자원부 외(2006).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김상임(2004). 상담사례를 통해 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 이주여성인권센터 기념 심포지엄 학술대회 자료집.

김오남(2006).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법부무(2005).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관리지침. 보고자료.

보건복지부(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방안.

보건복지부(2006). 2006년도 정책추진방향. 내부자료.

성지혜(1996). 중국교포여성과 한국남성간의 결혼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현애(1993). 며느리의 시부모 부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서병숙(1991). 노인연구. 서울: 교문사

신경희(2004). 국제결혼가족의 부부갈등요인에 관한 연구-한국남성과 필리핀 여성의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선화(2004). 상담사례에서 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 광주전남지역 국제 결혼한 이주여성 실태보고 및 토론회. (사)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자료집.

여성가족부(2005). 국제결혼부부교육프로그램개발 및 교육결과보고서.

오윤자(1992).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209~223.

유영주(1991).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가족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45~63.

윤형숙(2004a).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최협·김성국·정근식·유형기 편.「한국의 소수자, 실패와 전망」: 한울, 321~349.

윤형숙(2004b).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2004년도 한국여성학회 심포지엄 발표 논문.

이금연(2003). 국내 국제결혼과 그 이해-실태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국제결혼과 여성폭력에 관한 정책제안을 위한 원탁토론회 자료집. 안양전진상복지관

이주여성쉼터.
이기숙(1985). 한국가정의 고부갈등 발생원에 대한 요인 분석.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정연・정혜정・장진경(1996). 젊은 며느리를 위한 고부관계 향상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13~26.
임경혜(2004). 국제결혼 사례별로 나타난 가족문제에 따른 사회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라남도 여성정책과(2004). 국제결혼 이주여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워크샵 자료집.
전라남도(2006). 전남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복지실태조사 보고회 자료집.
전만길(2005). 외국인주부 한국생활실태조사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은희(2004).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발달과 언어환경. 언어치료연구 **13(3)**, 33~52.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06). 결혼이민자가족통합프로그램 매뉴얼 및 워크북.
차별시정위원회(2006). 2006.4. 혼혈인 및 이주자 사회통합 방안 발표.
충남여성정책개발원(2003). 충남거주 외국인 여성을 위한 정책모색 워크샵 자료집.
충북도청(2004). 충북 외국인 주부 정착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통계청(2005). 2005년 통계자료.
한건수(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43.
한국염(2004).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에 대한 여성사회학적 분석. 이주여성인권센터 3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홍기혜(2000).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숙자・유은희・전길양(2006). 중년 며느리를 위한 고부관계 향상 교육 프로그램. 대한가정학회지 **34(5)**, 293~305.
홍진주(2004).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rcus, M.(1987). A Framework for life-span family education. *Family Relations* ***36(1)***, 5~10.
Arcus, M.(1990). *Family life education curriculum guidelines*. The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Thomas, J., Schvaneveldt, J.D. & Young, M.H.(1993). Program in family lifr education: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In Arcus, M., Schvaneveldt, J. & Moss, J.(eds.), *Handbook of family life education*. Sage Publications.